

『釋迦如來十地修行記』
제7地 〈金犢太子傳〉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운문 제시어를 중심으로

신은경

우석대학교 교수, 고전시가·비교문학 전공

fnsek@woosuk.ac.kr

- I. 문제 제기
- II. 〈금독태자전〉의 삽입 운문의 특성
- III. 〈금독태자전〉의 성립 과정에 대한 추론
- IV. 맺음말

I. 문제 제기

〈금독태자전(金犢太子傳)〉은 『석가여래십지수행기(釋迦如來十地修行記)』(이하 『수행기』로 약칭)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중 하나이다. 『수행기』는 부처의 전생담 9편과 현생담 1편으로 이루어진 불교(佛敎) 서사단편(敍事短篇) 모음집인데 이 작품들은 각각 독립된 서사단편이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부처의 일대기라고 하는 일련의 장편을 이룬다. 이 작품집이 처음 결집(結集)된 것은 1328년 고려 충숙왕 때인데 조선조에 들어와 이 조술본(祖述本)에 소실산인(少室山人)이 약간의 첨삭을 가하여 1448년 왕실 기관인 이부(伊府)에서 초간(初刊)을 하였고 천오(天悟)가 이 책을 얻어(1646년) 베껴서 지니고 있던 것을 1660년에 덕주사(德周寺)에서 중간(重刊)하였다. 『수행기』의 조술본은 전하지 않고 현전하는 것은 바로 덕주사에서 중간한 것이다.¹⁾

초간본이나 중간본에는 제목이 없으나 안진호가 편찬한 현토본²⁾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인 이래 각 작품은 이 제목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에 의거해 각 편의 제목을 보면, 제1지(第一地) 〈선색녹왕전(善色鹿王傳)〉, 제2지(第二地) 〈인욕태자전(忍辱太子傳)〉, 제3지(第三地) 〈포시국왕전(布施國王傳)〉, 제4지(第四地) 〈사신태자전(捨身太子傳)〉, 제5지(第五地) 〈인욕선인전(忍辱善人傳)〉, 제6지(第六地) 〈선우태자전(善友太子傳)〉, 제7지(第七地) 〈금독태자전(金犢太子傳)〉, 제8지(第八地) 〈선혜동자전(善惠童子傳)〉, 제9지(第九地) 〈포시태자전(布施太子傳)〉, 제10지(第十地) 〈실달태자전(悉達太子傳)〉이다.

『수행기』에 수록된 10편 중 이 작품과 제6지 〈선우태자전〉은 후에 국문소설로 발전하였는데, 이 같은 소설사적 의의와 비중으로 인해 그간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³⁾ 그러나 이 글에서 〈금독태자전〉에 특별히

1) 이 책의 간행경위, 이본 등에 대해서는 박병동, 『불경 전래설화의 소설적 변모 양상』(역락, 200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안진호에 의해 현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륜사에서 1936년에 출판한 것이다.

3) 『수행기』의 작품들 중 제6지 〈선우태자전〉은 〈적성의전〉으로, 제7지 〈금독태자전〉은 「금송아지전」으로, 그리고 부록 중 〈안락국태자경〉은 〈안락국전〉으로 고소설사에 정착하게 된다. 이 작품들은 논자에 따라서는 '불교계 국문소설', '형성기의 국문소설'로 규정되면서 한글 창제 후부터 최초의 국문소설로 불리는 〈홍길동전〉 출현까지의 긴 공백을 메워주는 작품군으로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 견해는 사재동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그의 저서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중앙문화

주목하는 것은, 이 작품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와 비중 때문이 아니라 삽입 운문의 운용에서 다른 작품들과는 변별되는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10편 중에는 운문이 포함된 것이 몇 편 있는데, 제1지 〈선색독왕전〉에 7언의 계(偈) 1편, 제3지 〈보시국왕전〉에 5언의 계 1편, 제7지 〈금독태자전〉에 7언계 7편과 7언시 6편, 도합 13편, 제9지 〈보시태자전〉에 7언계 8편, 제10지 〈실달태자전〉에 7언계 13편이 삽입되어 있다.

특히 〈금독태자전〉에는 운문이 13편이나 삽입되어 있어 제10지 〈실달태자전〉과 더불어 가장 많은 운문을 지니며, 산문 다음 운문을 유도하는 제시어로서 다른 작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시위증(有詩爲証)’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다른 작품들에서는 삽입된 운문에 대하여 모두 ‘계라는 말로 지칭하는데 〈금독태자전〉에서는 ‘계가 7회, ‘시(詩)’가 6회 사용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삽입 운문의 특징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특별히 ‘저본’이라 할 불경을 찾을 수 없다는 점⁴⁾, 세부적인 면까지 부연되어 있어 길이가 길고 내용도 더 세속화되어 있다는 점도 필자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다. 이 점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금독태자전〉의 성립·유통 양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금독태자전〉의 삽입 운문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이 작품의 성립 시기 및 성립 과정, 작자, 『수행기』로의 편입 시기, 유통 양상 등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금독태자전〉의 삽입 운문의 특성

1. 삽입 운문의 전반적 양상

〈금독태자전〉은 파리국 왕의 세 부인 중 제3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 1994)에 집약되어 있다. 〈금독태자전〉은 국문소설화되어 수많은 이본을 파생시켰는데, 현전하는 것으로 13종의 필사본과 2종의 구활자본이 있다.

4) 불교 경전의 동물 변신담 중 『본생경』에 〈검은 소 전생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이는 단지 ‘소’를 소재로 한 단편적인 삽화에 불과하여 이를 〈금독태자전〉의 저본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이로 볼 때 〈금독태자전〉은 『본생경』의 소재를 취해서 완전히 창작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병동, 앞의 책, 117쪽.

주인공이, 부왕의 부재 중 두 부인의 시기로 소에게 먹힌 뒤 송아지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후 온갖 고난을 거쳐 고려의 공주와 결혼하고 금륜국의 왕이 된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이 작품에 삽입된 운문은 총 13편으로 이는 제10지 <실달태자전>과 함께 가장 많은 수에 해당한다. 운문이 삽입되는 전후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2·3수: 왕이 자신이 돌아왔을 때 무엇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는 물음에 세 부인이 그 답으로 각각 읊은 게
- 제4수: 수승 부인이 산과를 매수한 뒤, 자신들의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읊은 게
- 제5수: 어미소가 태자를 삼키는 것을 보고 두 부인이 기뻐하며 읊은 게
- 제6수: 두 부인이 보만 부인을 음해하려고 왕에게 올리는 서신 형태의 운문
- 제7수: 보만 부인이 자식의 생사를 궁금해하며 비탄에 젖어 읊은 시구
- 제8수: 왕이 금송아지를 보고 기뻐하며 지은 시
- 제9수: 의관이 두 부인이 상주한 대로 두 부인의 병의 증세와 금송아지 간만이 유일한 치료약이라고 고하는 내용의 시
- 제10수: 금송아지가 어머니와의 이별에 처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지은 게
- 제11수: 하늘에서 떨어진 쪽지에 적힌 내용
- 제12수: 공주가 부왕에게 금송아지를 부마로 삼아줄 것을 하소연하며 읊은 시
- 제13수: 仙人이 자신이 준 영단 묘약을 금송아지가 삼킨 것을 보고 지은 게

이 작품에 삽입된 운문은 13편 모두 7언시이며, 그중에서도 7언율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강경문이나 변문(變文)에서 계송류 운문의 65%는 7언으로 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점⁵⁾에 비추어볼 때, 이 작품과 『수행기』에 포함된 모든 운문이 한 편만 제외하고⁶⁾ 모두 7언시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수행기』가 강경문이나 변문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운문이 포함된 『수행기』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운문을 모두 ‘계’라는 말로만 지칭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계’가 6회, ‘시’가 5회 사용⁷⁾되어 주목을 요한다.

아래에 인용한 것은 임금이 자신이 궁으로 돌아오는 날 세 부인은 각각 무엇으로써 자신을 영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금송아지의 어머니인 보만 부인이 ‘아들을 안고’ 영접하겠다고 하며 지은 ‘계’이다.

5) 王重民, 「敦煌變文研究」, 周紹良·白話文 編, 『敦煌變文論叢錄』上(臺北: 明文書局, 1985), 292-300쪽.

6) 제3지 <보시국왕전>에 삽입된 5언계 한 편이 이에 해당한다.

7) 나머지 두 편은 운문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

小妾今朝奏我主	소첩이 오늘 아침 임금께 아뢰오니
千般巧計未爲奇	천 가지 교묘한 계획도 훌륭하다 못 하리다
錦衣豈用扶皇社	비단옷이 어찌 종묘사직을 도울 것이며
花果焉能壯帝基	꽃과 과일이 어찌 제왕의 기틀을 굳건히 할 것인가
賤體娠懷聖子	천한 몸에 성스러운 아들 회임하였나니
秋來決定降金枝	가을이 오면 틀림없이 귀한 자손 태어나리다
大王一日回鸞駕	임금의 어가가 돌아오시는 날에
我在御前獻子兒	저는 임금 앞에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산문 다음에 ‘부인유계(夫人有偈)’라는 운문 제시어가 오고 ‘계’로 일컬어진 운문이 이어진다. 이를 본장 제2절에 인용한 보만 부인의 ‘시’와 비교해보면 8구와 20구라는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두 예 모두 불교적 가르침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만 부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 또한 두 예 모두 인물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써 표현한 ‘이시대화(以詩代話)’의 성격을 띤다는 점, 산문으로 서술한 것을 운문으로 다시 되풀이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전통적인 계송은 대개 4구로 되어 있고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위의 계는 이런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 세속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계’가 더 이상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시’와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삽입된 운문을 ‘계’로 지칭한 여타 작품들의 경우도 ‘계’가 더 이상 불교적 내용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문을 ‘계’라 지칭하는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금독태자전>의 경우는 운문의 내용, 명칭까지 불교적 전통에서 더욱 떨어져 있는 것이다. 운문의 내용과 명칭의 상관관계에 따라 1) 불교적 내용을 ‘계’라고 칭한 경우 2) 내용은 불교와 무관하지만 이를 ‘계’라 칭한 경우 3) 내용도 불교와 무관하고 이를 계가 아닌 ‘시’로 칭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볼 때 맨 나중의 것이 가장 후대의 양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양상을 포함하고 있는 <금독태자전>이 다른 작품보다 나중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운문 제시어 ‘유시위증’에 대한 검토

삽입 운문과 관련하여 <금독태자전>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산문서술 다음 운문이 제시되는 부분에 사용된 표현의 특이성이다. 13편에 나타난 운문 제시어는 다음과 같다.

제1수: 殊勝夫人有偈

제2수: 淨德夫人有偈

제3수: (普滿)夫人有偈

제4수: 殊勝有偈曰

제5수: 二人見了歡喜拍手 有詩爲快

제6수: 二宮夫人生謀害心 具表向清涼 奏帝普滿夫人在宮生一怪兒

제7수: 普滿在磨房中長嘆一辭 有詩爲証

제8수: (君王) 陞殿之時 引牛兒上殿御駕歡喜 有詩爲証

제9수: (醫官) 作詩一首

제10수: (牛兒) 惆悵不已 忽作一偈

제11수: 從空飄下一帖來 正落在牛兒身上 上寫四句 老人看曰

제12수: (公主) 吟詩一首曰

제13수: (仙人) 付牛兒一偈

위의 운문 제시어에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이 발견된다. 『수행기』의 나머지 9작품과 부록으로 붙어 있는 작품들은 물론, 고려시대에 찬술된 산·운 혼합담론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유시위증’이라는 표현이 제7수와 제8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5수의 경우는 ‘유시위쾌(有詩爲快)’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수행기』 여기저기서 오기(誤記)가 분명한 것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快’는 ‘証’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유시위쾌’라 하더라도 ‘유시위증’과 같은 부류로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다. 제7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임금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궁으로 보내서 보만 부인의 머리를 쥐고 눈썹을 밀어 방앗간에 보내어 맷돌을 돌리는 벌을 받게 했다. 그러고는 밤낮으로 쉬지 못하게 감시를 하니 (부인의) 몸은 몹시 여위고 수척해져서 천 갈래 만 갈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와 같은 고통 중에서도 ‘내 자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다. 보만 부인은 방앗간에서 길게 탄식을 하면서 글을 지었다. 여기 이것을 증명하는 시가 있다.⁸⁾

憶兒不覺打初更	자식 생각에 밤이 된 것도 알지 못하고
煩惱慟惶雨泪傾	걱정과 근심에 눈물이 비 오듯 흐르네
用死猫兒換太子	죽은 고양이 새끼를 태자와 바꿔치고
清涼奏轉主人驚	청량산에 상주하여 임금까지 놀라게 했다네
今朝罰我常推磨	오늘 아침 내게 벌을 주어 맷돌을 돌리게 하고
又被宮人來喝罵	궁인들이 와서 호령하고 욕을 한다네

위의 시는 총 20구로 된 7언시 중 앞의 6구를 인용한 것인데, 산문 서술 다음에 ‘유시위중’이라는 운문 제시어가 오고 그 뒤에 산문과 동일한 내용의 운문이 이어지고 있다. ‘유시위중’이라는 운문 제시어로 이어지는 운문을 앞서 1절에서 인용한 ‘부인유계(夫人有偈)’로 이어지는 운문과 비교할 때 내용이나 표현 기교상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논자에 따라서는 ‘유시위중’의 문구가 이야기의 내용을 객관화하기 위해 사용된다⁸⁾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証’이라는 글자가 지닌 뜻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1절에서 인용한 보만 부인의 ‘계’처럼 이 경우도 인물-보만 부인-의 내면세계를 인물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운문이 포함된 다른 작품들에 사용된 운문 제시어의 종류와 출현 횟수는 다음과 같다.

- 제1지(1편): 因作無常偈曰
- 제3지(1편): 說偈曰
- 제9지(8편): 說偈(4회), 作偈言(1회), 作一偈曰(1회), 留偈(1회), 偈(1회)
- 제10지(13편): 說偈(5회), 留偈(2회), 作偈言(1회), 作一偈(1회), 嘆偈曰(1회), 書一偈(1회), 道偈(1회), 讚佛之偈(1회)

위에서 드러나다시피 ‘說·作·留·書+偈’라는 표현이 기본이 되어 있어 <금독태자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운문에 대해서도 모두 ‘계’라 했고 ‘시’로 나타낸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금독태자전>의 ‘유시위중’은 다른 표현들과는 성질이 매우 다른 것임이 드러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작품들의 저본이 되는 불경(佛經)에 사용된

8) 君王聞知大怒 遣遣使臣領肯回宮 將普滿夫人剪髮齊眉 在磨房推磨 令人兼管日夜不停 身形枯瘦 泪落千行 思想我兒不知何處 普滿在磨房中 長嘆一辭 有詩爲証.
 9) 太田辰夫, 『西遊記の研究』(東京: 研文出版社, 1984), 24쪽.

대표적 운문 제시어가 바로 ‘설계(說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3지 <보시국왕전>의 저본으로 여겨지는 『현우경(賢愚經)』 권제일(卷第一) <범천청법육사품(梵天講法六事品)>¹⁰⁾을 보면 ‘설일계(說一偈)’, ‘설계언(說偈言)’, ‘설차계(說此偈)’ 등의 작은 차이는 있지만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금독태자전>의 경우 저본이 되는 불경이 없는 것과 운문에 대해 ‘시’라는 말이 사용된 것, 그리고 독특한 운문 제시어가 사용된 점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점들은 <금독태자전>이 다른 작품들보다 늦게 지어졌을 것임을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 동시에, 이 작품의 창작·유통과정, 그리고 현전 『수행기』에 편입(編入)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실마리가 된다고 본다. 특히 운문 제시어 ‘유시위증’이 이 문제를 푸는 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운문 제시어는 중국의 송(宋)·원대(元代) 강창예술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구연류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에 보이는 운문 제시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텍스트들을 보면 독특한 운문 제시어들이 사용되어 눈길을 끄는데, 예를 들면 강경문에서는 ‘偈曰’·‘頌曰’·‘讚曰’이, 변문에서는 ‘道何言語’, ‘處 若爲陳說’, 송·원 화본(話本)에서는 ‘正是’·‘但見’·‘只見’·‘恰似’·‘好似’·‘有詩(詞)爲證’ 등이 이에 해당한다.¹¹⁾ 이 중 ‘유시위증’은 당대의 변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송대 화본에서 처음 나타나다가, 화본을 모방하여 읽기 위한 용도로 창작한 명대(明代) 의화본(擬話本)과 명(明)·청대(清代) 연의류(演義類)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던 상투적 제시어이다. 연의류 소설을 대표하는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며 아무리 빨리 잡아도 1522년 이전으로까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¹²⁾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에 이 제시어가 나타나는 것은 조선 중기 국내에 유입된 연의류 소설의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10) 『大正新修大藏經』 제4권 「本然部」 下.

11) 장춘석, 「中國 古代 白話小說의 韻·散 전환 표기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54호(2009. 2).

12) 『삼국지연의』의 유입 시기에 관한 것은 유탁일, 「15·6세기 중국소설의 韓國傳入과 受容」, 『어문교육논집』 제10집(부산대학교 국어과, 1988);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韓國篇(아세아문화사, 2001), 40쪽, 43-44쪽 참조.

그렇다면 1328년의 조술본에 약간의 첨삭이 가해져 1448년 이부에서 초간이 되고 약 200여 년이 흐른 뒤 이것이 천오의 손에 들어가 필자가 이루어진 뒤 1660년에 덕주사에서 중간이 이루어진 『수행기』에 이 문구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과정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필자는 ‘유시위중’이라는 문구를 단서로 <금독태자전>은 다른 9편의 작품보다 늦은 시기에 지어졌고 『수행기』에 편입되는 과정도 여타 작품들과는 다른 별개의 루트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 구연류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특히 송대의 화본이나 원대의 평화(評話)¹³⁾가 그 영향의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금독태자전>이 고려시대의 『수행기』 조술본에 처음부터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이 조술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지어져 1448년 이부에서 초간본을 간행할 때 십지(十地)의 하나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는 가설이다. 송대의 화본을 ‘유시위중’의 원천으로 보는 것은 전자의 가설과 관련이 있으며, 원대의 평화를 그 원천으로 보는 것은 후자의 가설과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송·원·명대의 구연류 서사체 시삽입형 혼합담론의 면모를 간단히 개괄할 필요가 있다. 남송대(南宋代, 1127-1279)에 들어오면 시민계급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그들의 오락거리로서 설화업(說話業)이 성행하게 되는데, 설화란 청중 앞에서 강(講)과 창(唱)을 섞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관람료를 받는 흥행예술이다. 이것은 속강(俗講)의 문자기록물인 변문에 비해 창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말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에는 ‘설화사(說話四家)’¹⁴⁾라 하여 소설(小說)·설경(說經)·강사(講史)·설철기아(說鐵騎兒)의 네 가지가 크게 유행했는데, ‘화본’은 이 설화사(說話四家)의 공연 내용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이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은자(銀字兒)’ 또는 ‘단서(短書)’라고도 불린 ‘소설’의 화본으로 이는 짧은 고사를 구연한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화본소설’¹⁵⁾이라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

13) 評話는 平和라고도 쓰며 명·청대의 演義類를 가리키는 元代의 표현이다.

14) 무엇을 說話四家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한데, 여기서는 호사영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胡士榮, 『話本小說概論』(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96-103쪽.

전해지는 화본은 대개가 소설의 화본이다. 한편 긴 장편의 이야기를 구연하는 '강사의 화본은 원대에는 '평(平)화'로, 명대에는 '연의(演義)로 불렸는데 이 연의는 회를 나누어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어 장회소설(章回小說)이라고도 한다.

III. <금독태자전>의 성립 과정에 대한 추론

그러면 「금독태자전」에 사용된 독특한 운문 제시어 '유시위증'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성립 과정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구체화해보기로 한다.

1. '유시위증'과 송대 화본: 가설1

먼저 송대 화본이 <금독태자전>의 '유시위증'의 원천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송·원 시기에는 문인(文人) 출신의 서회선생(書會先生), 재인(才人), 노랑(老郎) 등과 같은 전문적인 필사자가 있어 설화 공연이 행해지고 나면 필사(筆寫)를 하고 나아가 필사된 텍스트들에 가필(加筆)과 윤색을 하여 세련되게 다듬은 뒤 책으로 간인(刊印)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다. 이들은 공연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설화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⁶⁾ 그리고 명대에 이르면 여기저기 흩어져 전해지던 것들을 수집·정리하여 출판하는 일이 빈번해지는데 오늘날 전해지는 화본들은 대개 명대에 간인된 것이다. 명의 홍편(洪樞)이 간행한 『청평산당화본(淸平山堂話本)』¹⁷⁾은 그 대표적인 화본집이다. 오늘날 송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화본은 그다지 수가 많지 않은데 『청평산당화본』에 11편¹⁸⁾ 『경본통속소설(京本通俗小

15) 소설의 화본을 오늘날의 novel이나 fiction 개념의 소설과 구분하기 위하여 '話本小說'이라 부른다.

16) 胡士榮, 앞의 책, 64-73쪽.

17) 이 책의 원래 이름은 『六十家小說』로, 明代의 장서가이자 출판인인 洪樞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책 제목은 그의 서재 이름인 '淸平山堂'에서 따온 것인데,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는 60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29편이다. 홍편에 관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明代 嘉靖年間(1522-1566)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淸平山堂話本』에는 宋·元·明의 작품이 섞여 있는데 현재 전해지는 29편 중 송대의

說)』에 7편¹⁹⁾을 비롯하여,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편찬한 이른바 삼언(三言) 『경세통언(警世通言)』·『성세항언(醒世恒言)』·『유세명언(喻世明言)』, 능몽초(凌濛初, 1580-1644)가 편찬한 이박(二拍) 『초각(初刻) 박안경기(拍案驚奇)』·『이각(二刻) 박안경기(拍案驚奇)』 등에도 소수의 송대 작품이 전해진다.²⁰⁾

송대 화본 작품들에서는 ‘유시위증’이라는 운문 제시어가 다수 발견되는데²¹⁾ 몇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蘇東坡去西湖之上 造一所書院 門栽楊柳園種百花 至今西湖號爲蘇堤楊柳園。又開建西湖長堤上一株楊柳一株桃花 後有詩爲証。 “蘇公堤上多佳景 / 惟有孤山浪里高 / 西湖十里天連水 / 一株楊柳一株桃” (소동파는 서호에 가서 서원을 짓고 문가에 버드나무와 온갖 꽃들을 심었다. 지금 서호에서는 이를 ‘蘇堤楊柳園’이라 부른다. 또西湖長堤를 열고 제방 위에 한 그루의 버드나무와 한 그루의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뒤에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한다. “蘇公堤는 온통 수려한 경치 / 외로운 산 하나 파도 치는 곳에 우뚝 서 있네 / 서호 십 리, 하늘은 물에 닿아 있는데 / 버드나무 한 그루와 복숭아나무 한 그루.” 〈五戒禪師私紅蓮記〉)²²⁾

所以古人說 日久見人心。又道 蓋棺論始定。不可以一時之譽斷其爲君子 不可以一時之謗斷其爲小人。有詩爲證。 “毀譽從來不可聽 / 是非終久自分明 / 一時輕信人言語 / 自有明人話不平” (그러므로 옛사람이 ‘시간이 지나봐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사람의 평가는 죽은 후에야 결정된다고 하였다. 한때의 칭찬으로 그를 군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때의 비방으로 그를 소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한다. “비방과 칭찬은 지금까지 내려온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며 /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분명해지네 / 한때 사람의 말을 가볍게 믿으면 / 그들의 말이 공평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拗相公飲恨半山堂〉)²³⁾

이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시위증’의 ‘証’은 ‘證’이라고도 쓰는데, 〈금독태자전〉에서는 ‘証’으로 일관되어 있다. 위 두 예에서 ‘유시위증’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1편이다. 胡士榮, 앞의 책, 209쪽.

19) 胡士榮, 앞의 책, 200쪽.

20) 이 작품집들에서 송대의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행한 대표적인 학자는 胡士榮이다. 胡士榮, 앞의 책, 195-235쪽.

21) 송·원 화본에 쓰인 운문 제시어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正是’이고 다음이 ‘有詩爲證’이며, 그다음이 ‘但見’으로서 이 세 투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하였다. 장춘석, 앞의 논문, 500쪽.

22) 明 洪樸, 『清平山堂話本』(臺北: 世界書局, 1982).

23) 楊家駱 主編, 『京本通俗小說』(臺北: 世界書局, 1980).

라는 문구로 소개되는 시는 모두 7언절구이며 산문으로 서술한 내용을 반복해서 읊고 있다. 이는 변문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으로, 청중을 상대로 펼쳐지는 공연예술의 특징이다. 구연류(口演類) 텍스트는 일회성(一回性)·구비성(口碑性)을 지닌 연행예술이므로 한번 말로 발화된 것은 되풀이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청중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講)으로 한 다음 창사(唱詞)로 되풀이하는 운문 운용방식이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산·운 결합의 양상을 계기식(繼起式)·계열식(系列式)·준계기식(準繼起式)으로 분류할 때 이처럼 산문과 운문의 내용이 중복되는 양상은 이 중 '계열식'에 해당한다.²⁴⁾ 『수행기』의 운문도 이와 같은 계열식이 주를 이루며, <금독태자전>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금독태자전>의 '유시위중'이나 '유시위괘'는 명백히 송대 화본의 그것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송대 화본에서는 '유시위중' 대신 '有(蝶戀花)詞爲證', '有詞寄(眼兒媚)爲證'(<碾玉觀音>)²⁵⁾과 같이 '유사위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시위중' 외에 <금독태자전> 운문 제시어 중에는 제1수에서 제4수의 "夫人有偈"처럼 '운문을 지은 사람 + 有 + 운문 종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4수 있는데, 이런 형태는 <금독태자전> 이외의 다른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이 또한 송대의 화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운문 제시어인 것이다.²⁶⁾

양자 간에 보이는 이 같은 공통점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확연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고려는 북송·남송·요·금·원 등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정치·무역·문화·풍속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송과는 문인이나 상인(商人), 조정 신료들의 왕래와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고려인들이 중국에 가서 설화 공연이 행해지는 현장을 직접 구경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송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24) 계기식은 산문과 운문의 중복 없이 새로운 내용과 정보가 연이어서 제공되는 방식이며, 준계기식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식' 혹은 '삼용체'로 분류되던 산·운 결합방식으로서 산문서술 중의 어느 한 '단어'나 '語句'를 단위로 하여 이에 대해 운문이 부연적으로 서술하는 패턴을 가리킨다. 口演類 텍스트는 연행예술의 속성상 계열식과 준계기식 결합이 활성화되는 반면, 계기식 결합은 비활성화된다. 傳奇와 같은 '讀本類' 시삽입형 혼합담론은 읽기 위한 텍스트이므로 산·운 결합이 계기식인 경우가 많다.

25) 이 작품은 『京本通俗小說』 제10권에 실려 있고, 명대 의화본 『警世通言』 8권에 <崔待詔生死冤家鬼>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6) 장춘석(앞의 논문, 500쪽)은 운문 제시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형태는 유형 2)에 속한다.

통해,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화본 관련 서책들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간접으로 설화나 화본을 접해 ‘유시위중’의 쓰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유포되어 있던 부처 전생담 혹은 『수행기』 작품들의 체제를 본떠 〈금독태자전〉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²⁷⁾ 〈금독태자전〉 외에 운문이 포함된 〈선색녹왕전〉, 〈보시국왕전〉, 〈보시대자전〉, 〈실달태자전〉의 경우 불경의 기본 줄거리에 살을 붙여 흥미롭게 각색한 뒤 불경에는 없는 운문을 새롭게 창작하여 삽입한 양상을 보인다. 불경에 의거하지 않은 〈금독태자전〉의 경우는 운문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새롭게 창작한 것이어서 다른 작품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금독태자전〉이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 불경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른 작품들에서의 운문 제시어는 저본으로 하는 불경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형태를 취하는 것에 비해, 이 작품의 경우는 송대 대중을 위한 오락물인 설화의 화본에 보이는 운문 제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부인들 간의 갈등을 주축으로 한 가정사가 세밀하게 그려진 점 등에 의거할 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속강승(俗講僧)이 아닌 일반 신불자(信佛者) 중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을 지닌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 점들은 〈금독태자전〉이 다른 9작품보다 늦은 시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똑같이 부처의 전생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은 불경을 저본으로 하고 다른 것은 저본 없이 창작되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중 전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본떠 후자가 지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금독태자전〉은 나머지 작품들과는 다른 루트로 유통되다가 1328년 『수행기』 조술본에 십지의 하나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나머지 9작품의 작자와 〈금독태자전〉의 작자는 별도의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머지 9작품의 경우도 속강승이 불경의 내용을 흥미롭게 각색 내지 운색하여 대중법회에서 구연한 것이므로, 이때의 속강승은 순전한 창작자라기보다는 준(準)작자로 규정할 수 있다.

27) 예컨대 제10지를 제외한 『수행기』 대다수 작품들은 ‘옛날 여래는 ○○國의 태자였다’라는 도입액자로 시작하고 종결액자는 생략하는 ‘불완전 액자구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독태자전〉도 이 체제를 따르고 있다.

〈금독태자전〉의 작자 또한 상상력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속강법회에서 행해지던 부처 전생담을 모방하고 대중교화라는 목적 혹은 용도를 의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창작자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수행기』라는 책으로 결집된 이 작품들은 한편으로는 독물화(讀物化)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속강법회에서 설법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을 것으로 본다.

2. '유시위증'과 원대 평화: 가설2

다음으로 〈금독태자전〉의 '유시위증'이 원대 평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하자.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단서는 고려 말 조선 초의 사역원에서 중국어 학습교재로 사용되었던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의 몇몇 기록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걸대』는 여행과 교역을 중심으로 한 일상용(日常用) 초급회화의 성격을 띠고, 『박통사』는 풍속(風俗)·세태(世態)·오락(娛樂)·혼상(婚喪)·종교(宗教)·매매(賣買)·송사(訟事)·문서(文書) 등 당시 중국의 사회적 풍속과 생활문화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른바 고급 회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언어학적 측면의 가치 외에도 원대에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중국의 사회적 특징과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²⁸⁾ 『박통사』의 성립연대는 1347년으로 추정²⁹⁾되고 있으나 원본은 전하지 않으며, 『노걸대』는 1350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³⁰⁾되고 최근에 원본이 발견되었다.

(甲) 我兩個部前買文書去來. (우리 둘이 部 앞에 책 사러 가세.)

(乙) 買甚麼文書去? (무슨 책을 사러 갈 건가?)

(甲) 買趙太祖飛龍記唐三藏西遊記去. (趙 태조가 나오는 『비룡기』와 唐 삼장법사가 나오는 『서유기』를 사러 가세.)

(乙) 買時四書六經也好 既讀孔聖之書 必達周公之理 要怎麼那一平話? (책을 살 것 같으면 四書나 六經이 좋을 텐데. 공자님의 글을 읽으면 주공의 말씀을 깨달아야

28) 이육화, 「贛譯 및 註釋: 朴通事新註新譯(一)」, 『중국학논총』 제33집(2011).

29) 민영규, 「朴通事著作年代」, 『東洋史學』 제9·10집(1966), 5-9쪽.

30) 정광, 『譯註 原本 老乞大』(박문사, 2010), 397-398쪽.

지, 어찌 그런 平話를 사려 하는가?)

(甲) 西遊記熱鬧 閱時節好看有. 唐三藏引孫行者到車遲國 和白眼大仙鬪聖的你知道麼? (『서유기』는 흥미진진해서 답답할 때 읽으면 참 좋네. 당나라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데리고 車遲國에 가서 백안대선과 재주 겨루는 이야기를 자네 아는가?)³¹⁾

更買些文書. 一部四書 都是晦庵集註. 又買一部毛詩 尚書 周易 禮記 五子書 韓文柳文 東坡詩 淵源 詩學押韻 君臣故事 資治通鑑 翰院新書 標題小學 貞觀政要 三國志評話. (거기다가 책을 사렵니다. 『사서』 일부는 모두 회암의 집주본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시』·『상서』·『주역』·『예기』·『오자서』·『한문유문』·『동과시』·『연원시학압운』·『군신고사』·『자치통감』·『한원신서』·『표제소학』·『정관정요』·『삼국지평화』를 한 부씩 사겠소.)³²⁾

첫 번째 인용은 『박통사』에서 발췌한 것인데 여기서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평화로 지칭되고 있는 『서유기』는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 『서유기평화(西遊記平話)』를 가리키며 이 대화 뒤를 이어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어 명대 오승은(吳承恩)이 지은 『서유기』 성립 과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노걸대』의 인용 역시 고려 상인이 중국 상인과 대화하는 내용으로서 귀국할 때 사 가려고 하는 품목 중 서책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나오는 『삼국지평화(三國志平話)』 또한 원말(元末)의 것으로 명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다. ‘평화’는 강사(講史)의 화본을 일컫는 원대의 표현으로 이 두 작품이 원대에 유흥 현장에서 공연되었음을 말해준다.

『서유기평화』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으나 원나라 영종(英宗) 지치(至治) 연간(1321-1323)에 건안(建安)의 우씨(虞氏)가 간행한 『삼국지평화』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건안은 송·원·명대에 걸쳐 중국의 출판 중심지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의 원 제목은 『지치신간전상평화삼국지(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인데 작자의 성명은 없으며 원대의 강사 설화인들의 공연 내용을 기록한 화본으로 알려지고 있다.³³⁾ 설화인 만큼 여기서도 산문에 운문이 섞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문 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운문 제시어로서 ‘유시위증’이 사용되고 있어

31) 王霞·柳在元·崔宰榮 譯註, 『譯註 朴通事諺解』(학고방, 2012), 325-326쪽.

32) 정광, 앞의 책, 362-366쪽.

33) 이상 『삼국지평화』에 관한 것은 정원기 역주, 『三國志平話』(청양, 2000)의 解題에 의거함.

주목을 요한다.

先主馬曰的盧馬, 先主付馬言曰 吾命在爾 爾命在水 爾與吾有命 跳過此水. 先主打馬數鞭 一踊跳過檀溪水, 剗越蔡瑁追至 見先主跳過曰 眞天子也. 有詩爲證: “三月襄陽綠草齊 王孫相引到檀溪 的盧何處 埋龍骨 流水依然繞大堤”(선주가 탄 말은 이름을 ‘적로’라고 하였다. 선주는 말에게 당부했다. “나의 목숨은 너에게 달렸고, 너의 목숨은 저 강물에 달렸다. 너와 나의 목숨을 건지려면 저 강물을 뛰어넘어라.” 그리고는 선주가 말에 채찍질을 몇 차례 가하자, 말이 단번에 솟구쳐 오르더니 단계의 물을 뛰어 건넜다. 괴월과 채모 등이 뒤쫓아 와 선주가 강물을 뛰어넘는 광경을 보고 말했다. “참으로 천자로다.” 그것을 증명하는 시가 있다. “춘삼월 양양성에는 푸른 풀이 가지런한데 / 왕손은 말을 이끌고 단계의 물에 이르렀네 / 적로마는 어느 곳에 용의 뼈를 숨겼던고? / 흐르는 물은 의연히 큰 제방을 감고 도네.”)³⁴⁾

斬了呂布 安了下邳, 曹操深愛降將張遼劉備張飛, 丞相每日與玄德攜手飲酒 有意待用先主扶佐之心, 怎見得? 有詩爲證: “雙目能觀二耳輪 手長過膝異常人 他家本是中山後 肯做曹公臣下臣”(여포의 목을 베자 下邳는 안정되었다. 조조는 항복한 장수인 張遼를 비롯하여 劉備·張飛 등을 매우 좋아하였다. 승상은 매일 현덕과 함께 손을 맞잡고 술을 마셨으며, 先主가 자신을 보좌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나고? 그것을 증명하는 시가 있다. “두 눈으로는 양 귀바퀴를 볼 수가 있고 / 팔이 길어 무릎을 지나는 비범한 인물 / 그의 집은 본시 중산정왕의 후예인데 / 기꺼이 曹公 아래에서 신하가 되려 하네.”)³⁵⁾

『삼국지평화』에서는 운문 제시어 없이 ‘歌曰’이나 ‘詩曰’ 뒤에 운문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화된 패턴인데 운문 제시어가 있을 경우 ‘正是’가 1회 사용된 반면 ‘유시위중’은 6회 사용되었다. 명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도 ‘유시위중’은 운문 제시어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된다. 한편 명대 오승은의 『서유기』에 ‘유시위중’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원대의 『서유기평화』에서도 이 문구가 운문 제시어로서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예들에서 산문과 운문의 관계를 보면, 운문은 길고 복잡한 산문의 내용을 7언절구의 형태로 함축하고 있음을 본다. 첫 번째 인용의 경우 선주(先主)－유비(劉備)－가 괴월과 채모에게 쫓기는 장면이 산문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고 이 내용이 7언절구의 시로 함축되어 있음을 본다.

34) 위의 책, 216-218쪽.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하였다.

35) 위의 책, 172-173쪽.

운문의 제1구와 제2구에서 산문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에서는 ‘유비야말로 천자의 기상이 있다’는 심층적 주지(主旨)를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고 있다. 두 번째 예 역시 유비와 조조의 관계를 서술한 산문 내용을 7언절구로써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산문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그 광경을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산문에서는 양인(兩人)의 관계가 조조 중심으로 서술되는 반면, 운문에서는 유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산문, 운문 모두 유비가 조조 밑에서 군신관계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의 증가성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 예로부터 운문이 산문서술과 동일한 내용을 중첩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산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심층적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패턴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방식을 ‘계열식’이라 부른 바 있으나, 위 평화의 예에서 보이는 계열식은 송대 화본이나 <금독태자전>의 계열식과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계열식 결합방식은 언술의 표층 차원에서 내용이 중첩되는 ‘중복’의 양상과 심층 차원에서 대의(大意) 혹은 주지가 중첩되는 ‘등가의 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복’은 언술의 표층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반복·서술되는 것이고, ‘등가’는 산문의 심층 차원에서 형성되는 ‘추상적 주제’가 운문으로 압축·서술되는 것이다. 송대 화본이나 <금독태자전>의 경우 산·운 결합방식이 ‘중복’에 기초한 계열식이라면, 원대 평화의 경우는 ‘등가’에 기초한 계열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운문이 서술되는 시점(視點)을 보면 <금독태자전>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로써 인물의 말을 대신하는 ‘이시대화(以詩代話)’의 양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운문은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달리 앞에서 인용한 송대 화본이나 위의 원대 평화의 경우 운문이 서술자의 시점, 즉 설화인의 시점에서 전개된다는 차이가 있다.

세 텍스트 유형에서의 산·운 결합방식과 서술시점을 비교·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금독태자전>	송대 화본	원대 평화
산·운 결합방식	계열식(중복)	계열식(중복)	계열식(등가)
운문의 서술시점	인물의 시점	서술자(설화인)의 시점	서술자(설화인)의 시점

이 세 텍스트군 모두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떤 내용을 되풀이하는 계열식이 우세한데, 이는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구연류 텍스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전기(傳奇)와 같은 독본류의 경우, 산문의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고 이는 오히려 서사진행을 방해하는 군더더기일 뿐이므로 시가 하나의 서사단위를 구성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데 기여하는 ‘계기식’이 우세하다. 단 송대 화본—정확히는 송대 화본소설—의 경우 길이가 짧으므로 산문의 내용을 그대로 운문으로 되풀이하는 중복의 양상을 보이지만, 길이가 긴 평화의 경우 이렇게 되면 더 길이가 늘어나고 서사 전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산문에 담긴 심층적 주지를 한 편의 운문으로 압축·요약하는 ‘등가’의 양상이 우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송대 화본이나 원대 평화가 서술자(설화인)의 목소리로 서술되는 것과는 달리 〈금독태자전〉에서는 인물의 시점에서 인물의 목소리로 서술되는데, 이는 돈황 변문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금독태자전〉은 한편으로는 변문과의 공통점을, 또 한편으로는 송대 화본이나 원대 평화와의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금독태자전〉은 석가의 전생담을 내용으로 한다든지 ‘옛날 여래는 ○○국의 태자였다’라는 도입문구를 활용하는 등 전체적인 체제 면에서 나머지 9편의 작품들을 본떠 창작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위 요약 내용을 통해서 〈금독태자전〉이 비록 송대 화본이나 원대 평화에서 흔히 보이는 운문 제시어 ‘유시위중’을 도입하면서도, 산문과 운문의 결합방식 및 운문의 서술시점 등 운문 운용의 면에서는 오히려 변문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수행기』의 다른 작품들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1998년 원본 『노걸대』를 학계에 소개한 정광 교수는 여기에 나오는 간지(干支), 사용된 지명(地名), 물가 등을 단서로 이 책이 1346년 중국—원—에 간 고려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라 하고, 이것이 1350년경에 간인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⁶⁾ 7차에 걸친 몽골군의 침입으로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양국의 인적(人的)·물적(物的)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36) 정광, 앞의 책, 397-398쪽.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은 부경사신(赴京使臣), 이들을 수행한 역관(譯官)들, 상인은 물론 유학생, 중국 유람길에 나선 문인·서생들, 승려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고려 말 중국을 오가던 상인들, 유학생들, 문인, 학자들 중 누군가에 의해 『서유기평화』나 『삼국지평화』 같은 책들이 고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이것은 원나라로부터 하사품으로 받거나 조정(朝廷) 차원에서 수입한 공식적 루트가 아닌 개인 차원의 서적 구매이며, 과거에 소용이 되는 경서(經書)·사서(史書)·시문집(詩文集)만이 아닌, 여가에 심심과 적용의 흥미로운 내용의 읽을거리도 구매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앞서 『박통사』와 『노걸대』의 대화를 보면, 『서유기』를 사려는 사람은 공맹의 책을 읽은 서생이나 문인 혹은 유학생의 신분인 듯하고, 『삼국지평화』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장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고려 상인으로 드러난다.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 100%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상황에 의거해 대화를 구성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귀국길 상인의 구매목록에 원대의 평화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책들이 고려 말에 국내에 유입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광교수의 추론대로 『노걸대』가 1350년경에 출간되었고 여기에 『서유기평화』 구입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서유기평화』가 고려에 유입되었다면 그 시기는 1350년 이전으로 소급된다. 그러나 『삼국지평화』가 1321-1323년 사이에 출간된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 책들이 고려에 유입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323년 이전으로 소급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금독태자전>의 조술본이 1328년에 간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설령 이 평화들이 1320년대 초에 국내에 유입·유포되었다 하더라도 ‘유시위중’과 같은 문구가 조술본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다. 즉, 이 평화들의 ‘유시위중’이 <금독태자전>의 운문 제시어 사용에 영향을 주었다면 조술본 이후의 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독태자전>은 언제 누구에 의해 지어졌으며 어떤 경로를 거쳐 『수행기』의 하나로 편입되었을까.

앞서 <금독태자전>에 나타나는 ‘유시위중’의 연원을 송대 서민대중을 위한 오락물인 설화의 화본으로 보았을 경우, 송나라를 오가던 일반 신불자(信佛者) 누군가에 의해 이 이야기가 지어졌고, 이것이 독립적으로

유전(流轉)되다가 『수행기』 조술본에 십지의 하나로 선택,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이제 원대의 『서유기평화』와 『삼국지평화』라는 구체적 근거에 의거하여 이를 ‘유시위중’ 문구의 발원지로 볼 경우, 이 이야기를 지은 사람은 원을 오가던 사람들 중 설화라는 공연물을 직접 관람한 적이 있거나 혹은 이 평화 작품들을 통해 운문을 섞어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문체를 익히 잘 알고 있던 인물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전 시기에 걸쳐 불교가 성행하고 그만큼 신불자나 불교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므로 이 인물도 당연히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중국을 왕래한 고려의 불승(佛僧)을 작자로 볼 수도 있으나, 설화가 대중적 오락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승려가 설화 공연의 산물인 화본이나 평화를 통해 ‘유시위중’의 문구를 익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이야기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던 『수행기』의 십지를 본떠 운문을 섞어가며 <금독태자전>을 창작했을 것으로 본다. 한 개인 신불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 이야기는 문자로 기록되어 승속(僧俗) 양면에서 필사본 형태로 읽혀졌을 수도 있고, 대중 법회에서 속강승에 의해 연행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

부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어떤 특징의 불경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흥미롭게 운색한 여타 작품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불경의 내용에 의거하지 않은 <금독태자전>의 경우 작자의 창작성과 상상력이 더 많이 작용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10편 중 다른 작품에 비해 이 작품의 길이가 훨씬 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창작 시기는 『삼국지평화』의 간행(1321-1323) 이후부터 14세기 말 고려의 멸망(1392년) 그 사이였을 것으로 본다. 좀 더 좁혀본다면, 『박통사』나 『노걸대』가 출간된 14세기 중엽부터 고려 말까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것이 필사물로서 읽혀졌든, 속강승에 의해 속강 법회의 자료로 활용되었든 간에 승속에서 유전되다가 1448년 이부에서 발간한 『수행기』 초간본에 십지 중 하나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작품이 조선조에 들어와 1448년 이전 어느 시점에서 지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자와 결혼하는 인물이 ‘고려국(高麗國) 공주로 설정되어 있어 고려라는 실명(實名)이 주요 공간적 배경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고려 말에 지어졌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본다.

『수행기』는 석가여래의 전생·본생을 말해주는 작품들의 ‘선집(選集)’

이다. 이것은 10편의 텍스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석가여래의 일대기를 엮어나가면서도 각 단편들이 독립적으로 유통³⁷⁾되다가 하나의 책으로 묶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십지란 보살이 수행해야 할 52단계 중 41위부터 50위까지, 즉 환희지(歡喜地)·이구지(離垢地)·발광지(發光地)·염혜지(焰慧地)·난승지(難勝地)·현전지(現前地)·원행지(遠行地)·부동지(不動地)·선혜지(善慧地)·법운지(法雲地)를 가리키며, ‘십지보살(十地菩薩)’이란 보살로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자를 가리킨다.³⁸⁾ 『수행기』는 석가여래가 이 같은 십지과위(十地果位)를 증득하여 부처가 되기까지의 고행을 담은 설화집이므로 여기에 수록될 수 있는 이야기는 현전하는 10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부처의 전생담은 모두가 설화집에 수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들 중에 10편을 선별하여 『수행기』를 엮었다고 할 때, 고려시대의 조술본과 조선시대 1448년 이부에서 찍어낸 초판본의 10편의 이야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일치해야 할 필연적 이유도 없는 것이다. 『수행기』 이본들 중 낙은본에는 <안락국태자경(安樂國太子經)>·<수천제태자경(須闍提太子經)>·<선생태자경(善生太子經)>·<수달나태자경(須怛拏太子經)>·<섬효자경(睽孝子經)>·<석가성도경(釋迦成道經)> 등 10편의 작품이, 그리고 동국대본 필사본에는 무려 22편의 불교고사(佛教故事)들이 부기(附記)되어 있다는 사실³⁹⁾은, 『수행기』와 유사한 부처 전생담들이 『수행기』와는 별도의 경로로 유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전하는 10작품 외에 십지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유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60년의 중간본에는 초간본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이에 의하면 ‘소실산인(少室山人)이 여름 한가한 때 그것을 보고 번다한 말을 줄이고 새로운 것을 좇아 바르게 잡아(“芟削繁詞 從新校正”) 명나라 정통 무진년(1448)에 이부에서 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을 좇는다’라는 문구는, 조술본을 그대로 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37) 사재동, 『佛敎系 敍事文學의 연구-『釋迦如來十地修行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12집(1983), 185쪽.

38) 경인문화사 편집부, 『불교용어사전』 下(경인문화사, 1998), 1016쪽.

39) 박병동, 앞의 책, 38-39쪽.

내용 혹은 체제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곧 편찬자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조술본에는 없는 다른 이야기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필자는 <금독태자전>이 바로 이 ‘새로운 것’에 해당하며 이 작품이 조술본의 10편 가운데 한 작품을 대체하여 십지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십지의 하나로 편입된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함께 독본(讀本)으로서 읽히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법회에서 구연을 위한 ‘저본(底本)’으로 활용되기도 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선연행(先演行) 후기록(後記錄)의 성격을 띠는 여타 9편의 작품들과는 달리, 선기록(先記錄)(혹은 先創作) 후연행(後演行)의 성격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금독태자전>에 삽입된 운문의 운용 양상, 특히 운문 제시어 ‘유시위중’을 단서로 하여 이 작품의 성립 시기, 『수행기』로의 편입 과정, 작자 문제 등을 추론해보았다. 운문 제시어 ‘유시위중’의 발원지로서 송대 화본과 원대의 평화를 검토하고 『수행기』로 편입되는 과정을 추정해 보았는데, 이 두 가설 중 어느 하나로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필자는 후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싶다. 왜냐하면 전자의 추정은 송대 화본의 국내 유입 근거가 확실치 않은 반면, 원대 평화의 유입은 『서유기평화』나 『삼국지평화』로써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의 가능성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어느 쪽의 추정에 무게를 두든 <금독태자전>은 나머지 9편의 작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상의 검토에서 드러나는 <금독태자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불경을 저본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운문을 ‘시리는 말로 지칭하는 예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 독특한 운문 제시어가 사용되었다는 점들을 근거로 <금독태자전>이 나머지 9편보다 늦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들과는 다른 유전과정을 거쳐 『수행기』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입된 시기도 다른 작품들보다 뒤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금독태자전>은 고려 말 14세기 초 혹은 14세기 말에 어느 한 개인 신불자에 의해 창작되어 필사물(筆寫物)

혹은 구연을 위한 저본 형태로 유전되다가 1328년 조술본으로 결집되었거나, 1448년 소실산인에 의해 조술본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10작품 중 어느 하나를 대체하여 십지의 하나로 초간본 『수행기』에 수록되는 유통 경로를 지닌다.

둘째, 9편의 작품들은 속강승이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쉽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구연의 산물인 반면, 이 작품은 중국의 설화 공연이나 그 산물인 화본 또는 서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일반 신불자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9편 작품의 경우, 속강승을 準작자로 볼 수 있는 반면 〈금독태자전〉의 작자는 속강승이 아닌 일반 신불자라 할 수 있다.

셋째, 〈금독태자전〉은 『수행기』 조술본에 수록된 후 혹은 조술본의 10편 중 어느 하나를 대신하여 초간본으로 재결집이 된 후, 독본으로서 읽히기도 하고 때로는 강경 법회에서 구연을 위한 ‘저본’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이중의 루트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본다. 단 이때의 ‘저본’이란 연행자가 연행을 위해 암기하는 대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행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라는 의미이다.

넷째, 속강 법회에서 행해진 구연의 산물인 『수행기』의 다른 작품들이 선연행 후기록의 양상을 띠는다면, 한 개인 신불자에 의해 창작된 〈금독태자전〉은 선기록 후연행의 양상을 띤다.

참 고 문 헌

-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韓國篇. 아세아문화사, 2001.
- 민영규, 「朴通事著作年代」. 『東洋史學』 제9·10집, 1966, 5-9쪽.
- 박병동, 『불경 전래설화의 소설적 변모 양상』. 역락, 2003.
- 사재동, 「佛敎系 敍事文學의 연구-『釋迦如來十地修行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12집, 1983, 137-198쪽.
- _____,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 신은경, 「散韻 혼합담론의 유형과 양상: 『秋齋紀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8집, 2008, 295-319쪽.
- _____, 「동아시아 散韻 혼합담론의 始原으로서의 『春秋左氏傳』에 관한 연구」. 『東洋學』 제47집, 2010, 1-26쪽.
- 王霞·柳在元·崔宰榮 譯註, 『譯註 朴通事諺解』. 학고방, 2012.
- 유태일, 「15·6세기 중국소설의 韓國傳入과 受容」. 『어문교육논집』 제10집, 부산대 국어과, 1988.
-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4집, 1988, 137-171쪽.
- 이유화, 「翻譯 및 註釋: 朴通事新註新譯(一)」. 『중국학논총』 제33집, 2011, 173-203쪽.
- 장춘석, 「中國 古代 白話小說의 韻·散 전환 표기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54호, 2009.
- 정광, 『譯註 原本 老乞大』. 박문사, 2010.
- 정원기 역주, 『三國志平話』. 청양, 2000.
- 太田辰夫, 『西遊記の研究』. 東京: 研文出版社, 1984.
- 胡士榮, 『話本小說概論』. 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 洪梗, 『清平山堂話本』. 臺北: 世界書局, 1982.
- 楊家駱 編, 『敦煌變文』 下. 臺灣: 世界書局, 1980.
- 楊家駱 主編, 『京本通俗小說』. 臺北: 世界書局, 1980.
- 王重民, 「敦煌變文研究」. 周紹良·白話文 編, 『敦煌變文論文錄』 上, 臺北: 明文書局, 1985, 273-325쪽.

국 문 요 약

〈금독태자전(金犢太子傳)〉은 1328년 고려 충숙왕 때 이루어진 불교(佛敎) 서사단편(敍事短篇) 모음집 『석가여래십지수행기(釋迦如來十地修行記)』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중 하나이다. 『수행기』 10편의 작품 중에는 운문이 포함된 것이 몇 편 있는데, 특히 〈금독태자전〉에는 운문이 13편이나 삽입되어 있어 제10지 〈실달태자전〉과 더불어 가장 많은 운문을 지니며, 산문 다음 운문을 유도하는 제시어로서 다른 작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시위증(有詩爲証)’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에서는 삽입된 운문에 대하여 모두 ‘개(偈)’라는 말로 지칭하는데 〈금독태자전〉에서는 ‘개’와 더불어 ‘시(詩)’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특별히 ‘저본’이라 할 불경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세부적인 면까지 부연되어 있어 길이가 길고 내용도 더 세속화되어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 점들이 〈금독태자전〉의 성립 시기 및 성립 과정, 작자, 『수행기』로의 편입 시기, 유통 양상 등을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고 보아 이를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는 ‘유시위증’이라는 운문 제시어가 중국의 송(宋)·원대(元代) 강창예술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문구라는 점을 단서로 하여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송대의 ‘화본(話本)’을 ‘유시위증’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대의 ‘평화(平話)’를 그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투고일 2013. 3. 18.

심사일 2013. 3. 25.

게재 확정일 2013. 5. 8.

주제어(keyword) 석가여래십지수행기(Sōkkayōrae sipchisuhaeng gi), 「금독태자전」(Kūmdok t'aejajōn), 산·운 혼합담론(mixed discourse of prose and verse), 강창예술(prosimetric art), 운문 제시어(verse-introducing word), 유시위증(yusi wijōng), 화본(hwabon), 평화(p'yōnghwa)

